

제29장 로마의 기독교

1. 기독교의 번성: 로마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주후 54년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그 뒤를 계승함으로써 문을 열게 됩니다. 바울은 네로가 즉위한 지 3년도 채 못 되어 로마의 기독교 단체가 전 세계에 그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유대인 신자들뿐 아니라 동부 지중해의 여러 지역에서 이방 선교를 한 결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그 후에 로마에 정착한 아주 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 언급의 범위는 단지 '로마의 기독교인 단체'에 한하지만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롬1:7) 주는 말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회당이나 '가정 교회'에서나 다른 지역별 그룹에서 인사를 나누기는 하지만 한 도시 전체의 관할 아래 통일된 '로마 교회'가 없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부 지역별 그룹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후 57년의 분산된 로마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에게 도달한 보고들은 그들의 영적 진보를 전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의 방향은 반드시 같은 시각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편지가 읽혀지는 것을 그들 모두가 듣기를 기대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내린 지 불과 8년 만에 로마의 기독교 단체는 -비록 조직된 후라 하지만- 바울의 편지가 의미하는 대로 경이한 번성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해에 로마의 기독교의 진보에 관해 더 밝혀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온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루스 플란티우스(14년 전에 영국을 로마 제국에 합병했던 사람)의 아내 폼포니아 그레이시나는 '외국의 미신'을 받아들인 혐의로 가정법원에 의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타키투스는 이 죄목이 그녀가 14년간 상복을 입었고 보통 그녀의 계급 정도의 부녀가 출입하는 사교계를 회피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폼포니아는 죄목에서 방면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교성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생을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인 공동묘지 중 하나인 아피아안 도로변에 있는 '칼리스트투스 공동묘지'에 폼포니아 일가의 멤버들을 기념하는 2세기의 비문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 폼포니우스 그레이시누스(Pomponius Graecinus)는 생각건대 폼포니아의 직계이거나 그의 방계 자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그녀의 생존시에는 아니지만 1세기가 지난 후 그녀의 가족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2. 바울의 복음전파: 바울은 그의 편지를 로마에 보내고 3년 후에 대법정이 자기의 문체를 듣도록 군인의 호송 하에 그 자신이 거기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이 2년간의 연금 생활 (house-arrest) 을 하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더 접촉한 사실에 대해 누가는 전혀 말이 없으나 바울이 로마에 2년 간 있는 동안 그에게 온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유는 그 도시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빌립보서가 로마에서 보내진 것이든 아니든 간에 빌립보서 1:14의 문체는 확실히 바울이 로마 감금 생활을 두고 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와 로마 기독교 역사와의 관련성은 그 출처와 목적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스럽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 중의 하나는 그것이 로마 기독교의 유행하는 추세에 동조하지 않았던 로마에 있는 ‘가정 교회’나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회당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유대교는 로마법의 보호를 누렸으나 더욱더 어느 진영에도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게 되어 갔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복음 편을 택하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태워 버리고 자기들도 완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새로운 길에 자신들을 맡겨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히11:8)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첫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쁘게 맞아들인 박해를 상기시킵니다(히10:32-4) -아마 주후 49년에 있었던 그들의 로마 추방의 상황을 언급한 듯 합니다 (생각건대 추방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편지의 연대가 주후 64년 중반을 넘지 않았음을 암시해 줍니다.

3.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기독교인들의 순교: 주후 54년 7월 19일 팔라틴과 실리안 언덕에 인접해 있는 로마의 시르쿠스 막시무스의 동북쪽 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큰 불은 거기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바람으로 부채질을 받아 5일 동안 도시 전체를 짓이겨 놓았습니다. 겨우 그 불이 진압되었을 때 새로운 화재가 티겔리누스의 토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열네 구획 중에서 단 네 구획만 모면하였습니다. 셋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나머지 일곱은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팔라틴 언덕에 있는 황궁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는 티르헤니아 연안에 있는 안티움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로마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구제기구의 편성에 힘을 썼습니다. 티베르 동쪽 강가에 있는 캄푸스 마르티우스와 그 강 서쪽의 황제의 유원지가 집 없는 군중들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잠정적인 은신처가 그들을 위해 건축되었고 그들은 크게 감소된 비율로 곡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이러한 조처에 대해 조금도 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재건이 활기 있게 착수되었음에도 -화재로 소실된 궁전 대신에 세운 그의 새 궁전 ‘황금 집’은 아주 화려하고 넓었습니다- 대중의 의심의 손가락은 계속 네로를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네로는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제물감(scapegoats)을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큰 단체를 이루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방화 교사로 고발되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희생물로 삼았을까요? 의심할 나위도 없이 무엇보다도 그들은 평판이 나쁜 ‘인류를 미워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반사회적 태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생활 방식은 기독교인들이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그들과 똑같이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대한 군중이 방화죄로서보다는 인류에 대한 증오죄로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처형은 대중의 즐거움을 위한 제전이었습니다. 타키투스에 의하면 어떤 이는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어떤 이는 동물 가죽 속에 꿰매어져 개에게 사냥되었고, 어떤 이는 송진으로 덮여져서 어두워질 때 불을 켜는 살아 있는 횃불 역할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로마의 클레멘트는 ‘큰 무리’의 신자들이 어떻게 잔인한 고난을 감당해야 했으며, 어떻게 기독교인 부녀들이 관중들의 쾌락을 위해 디르스와 다나우스의 딸들의 역할을 해야 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학 행위들은 하마터면 그들의 목적을 실패케 할 뻔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련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 대중을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황제의 야만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의 박해 기간에 로마에서 순교 - 화재에 뒤이은 학살 때가 아니라면 그 후 1, 2년 뒤에 -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로 치하의 로마에서 순교당한 많은 기독교인 중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탁월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의 공동 창설자로 주장되고 이 밖에도 그들이 함께 거기에서 순교하여 그 교회에 종교적인(정치적인 것과는 다른) 큰 명성을 주었다는 사실 역시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불어나는 전통의 내용들이 1세기 기독교의 60년대의 역사적 사건들에 얼마나 근거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4. 로마 지도층의 복음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네로의 공격은 그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축출과 죽음(AD 68년 6월 19일)에 이은 네로에 대한 공식상의 저주문은 그들에게 선전 무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후대의 황제들이 그들을 다시 억압했을 때 그들은 네로의 전례를 따른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네로가 죽은 후 69년 말에 원로원이 수여한 황권을 취하기 위해 베스파시안이 70년 여름 로마에 당도한 그 사이에 ‘네 황제들의 시대’를 남겼던 이탈리아의 내란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신속한 심판이 박해하는 도시에 들이닥친 것으로 암시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스파시안의 도착과 함께 내란의 흔적은 신속하게 지워졌고 경제는 안정된 토대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마나 혹은 플라비안 황제들 치하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종교 단체의 멤버들이란 이유로 그들은 즉결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에 관한 명시된 금령은 없었습니다.

도미티안은 기독교 문헌에서 박해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통치 말엽 황족 중에는 그의 사촌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있었는데 그는 집정관직 말엽 주후 95년에 무신론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내 플라비아 도미틸라는 같은 혐의로 캄파니아 해안

에서 떨어진 판다테리아 섬으로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몇 달 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도미틸라의 청지기가 도미티안의 생명을 노리는 일단의 원로원의 음모자들에게 봉사하여 그를 암살하였습니다(AD 96년 9월 18일). 그는 여러 가지 도미티안의 포악한 조치를 바꿔놓았는데 예를 들면, 도미틸라는 유형에서 풀려나 서로마에 있는 그녀의 재산을 다시 소유하였습니다. 로마의 전통은 클레멘스와 도미틸라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편적인 증거들이 기독교가 로마의 귀족 가문에 침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르낙의 말은 옳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도착한 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황제의 딸이 신앙을 갖고 네로의 끔찍한 박해가 있는 지 30년 후에 황위의 상속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양육 받았다.” 그 존립을 위협하는 첫 공격에 살아남은 로마의 기독교는 그 후 최고의 권세에 의해 계속적이면서도 더 가혹하게 조직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가서 로마 도시와 제국은 교회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제30장 신약 말엽의 기독교

1. 초기 카톨릭 교회와 노스틱주의: 주후 1세기 말엽 기독교는 로마 세계에서 자리를 잘 굳히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퍼져 지중해의 북부 해안을 따라 가울까지 미쳤으나 스페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북쪽 아프리카 연안에서 키레나이카까지 퍼졌으나 아직도 로마의 아프리카 속국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0년이 경과한 후에야 로마는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를 억압하고 가능하면 근절하려는 간헐적인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리하게 과거의 상황을 돌아보는 역사가라면 주후 100년까지 견디어 낸 기독교를 근절하기란 더 이상 가능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해 무렵에 대부분의 신약 문서들이 기록되었지만 아직도 신약은 공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2세기 후반에 발견되는 카톨릭 교회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시대는 지나갔고 교회 안팎의 상황은 사도들의 죽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도적 기초를 주장한 교회들은 그들이 본래 받았던 가르침의 유지를 크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유지를 방해하는 여러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으뜸은 몇 십년 안에 영지주의(Gnosticism)의 여러 학파로, 이들은 정교한 제도로 발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의 한 형태는 골로새서에서 공격을 받은 대로 유대교를 기초로 하고 이교를 상층으로 하는 비국교도의 혼합주의적인 천사 숭배(angel-cult)입니다. 2, 30년 후에 총독 산하에 있는 몇몇 아시아의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초기 영지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국부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와 요한이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 영지주의의 이 다양성은 전통적으로 세린두스라고 하는 교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아시아 지방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영지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물질은 열등한 세력 혹은 조물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설을 포함한)을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덕과 지리를 부여받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라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희한한 기독교론을 제안하였습니다.

한 기독교 지도자가 증가하는 영지주의 교사들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얼마나 부실했는가가 요한의 두 번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하는)는 세상에 나온 미혹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를 조심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이 7절). 만일 누가 교회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교리 - 그들이 처음에 받은 후로 보존해 온 가르침-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집에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를 받지도 못하게 경고합니다. '이유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요이 10절 이하).

우리는 교회가 장로의 권면에 주의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은 모든 교회가 그의 권위에 복종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삼서에 보면 장로는 여행 중에 그가 큰 확신을 두었던 많은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생각건대 그들은 교인들을 사도적 신앙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 교회들을 순회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기원은 로마 교회보다도 더 큰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적 교회들이 가진 보편적 교회의 신앙이 2세기 무렵까지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2세기의 첫 3분의 2 기간 동안에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은 교리에 있어 보편적 교회적이기보다는 영지주의적이었습니다. 2세기의 진전된 영지주의는 신약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기원에 관한 종교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믿고 있는 이론, 즉 기독교 이전의 영지주의 신화를 신약의 여러 기자들이 복음의 방편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후대의 자료에 크게 근거하여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만다 사본에 근거하여 개조한 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지주의적 신화의 표현으로 고쳐 말하려던 최초의 한 시도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공격하는 혼합주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교회의 평화가 세워질 때까지 있었던 외부적 위협: 외부적으로 교회가 고려해야 했던 위협은 제국 세력의 적대 감정이었습니다. 이 적의는 항상 잠적해 있다가 단지 이따금 제한된 지역에서, 즉 한번은 수도에서, 한 번은 어떤 지방에서,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실제적인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자체에서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 두 문서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최근의(네로의) 박해를 들어 이와 유사한 박해가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에게 곧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전 제국을 묶어 놓고 기독교의 실행을 규정하는 어떤 일반적인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 후 합법적으로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관습이나 공언이 법령 이외의 것이 되었고 그것은 재판(cognitio)이라고 불리는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통상의 지방에

서는 행정 장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해도 2세기가 시작되는 초기 무렵 소(小) 플리니(the younger Pliny)가 비두니아와 폰투스의 총독(AD 111-112)으로 있는 동안 그와 트라얀(AD 98)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서신 교환으로 제국의 입장을 밝혀주는 문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플리니는 처음에 총독의 절대권(imperium)에 속한 폭넓은 기독교인들에게 주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기독교를 유심히 살펴보고 나서 자기가 바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노련한 배석 관사들도 그의 의심을 가라앉혀 놓을 만한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라는 법규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그가 지방 총독으로서 결정을 내린 많은 문제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황제에게 상의했습니다. 확실히 플리니는 총독으로서 그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지를 았았습니다. 그는 단지 개인들에 대한 고발이 개개인의 뽀박자들에 의해 들어올 때 (고소의 절차에 의해) 조처했을 뿐이었습니다. 플리니에 대한 트라얀의 답서는 기독교인들의 지위가 법 앞에서 어떠한지 아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플리니의 전반적 처리 방법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유죄로 박해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탐색해 내거나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익명의 투서에 유의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이교도들의 중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포기하도록 모든 권고를 한 다음 그들을 법 앞에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플리니에 대한 편지에서 트라얀이 세운 전례를 그의 후계자 하드리안(117-38)이 취하였는데 하드리안 황제가 주후 124년 아시아 총독 미누시우스 폰다누스에게 보낸 칙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박해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4:12 이하에서 주는 권고는 여러 세대 동안 전 로마 제국의 이곳 저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따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박해 중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지난 후에 동쪽에서는 갈레리우스의 자유의 칙령(the toleration edicts, 311)으로, 서쪽에서는 콘스탄틴과 리시니우스의 칙령(Licinius, 313)으로 교회의 평화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